

속지 말라

신학박사 조 덕운

[갈라디아서 6:7-8]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1. 우리를 속이는 것들

갈라디아서의 위의 말씀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이 사실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려 할 때에 우리를 속이는 요소들이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은 많이 속임을 당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속임 당하여 옳지 않은 길에 걷고 있으며, 심지어는 악의 길에서 사탄의 종으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성에 속임 당하여 여러 잘못과 죄를 범하였고 회개 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도 속임 당하여 죄에 빠진 적이 없다면 참으로 예외적인 존재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주 속임수를 써서 헛된 곳에 돈을 투자하도록 유인하거나 우리의 돈을 탈취하려고 하는 판촉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들은 감언이설로 설득하려 하지만 한두번 속아본 사람들은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속임수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감언이설이며, 우리의 영적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속임 수들입니다. 성경은 다음 여러 가지 속이는 자들 (Deceivers)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 주면서 우리가 조심하여 그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창조 직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먼저 속여 선악과를 먹게 하였고, 아담은 어리석게도 하와의 말을 듣고 이 속임에 쉽게 동참하였습니다 [창 3:13]. 이 속임 당한 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 권리를 잃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축출당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로써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영원히 사는 축복을 잃고 죽을 수 밖에 없는 한정되고 괴로움이 많은 인생, 죄 속에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 인간들을 속여서 이 세상에 불신과 사악함과 죄악과 전쟁과 불화가 항상 가득하도록 초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사탄의 교활한 유혹과 시험에 지속적으로 속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항상 올바르게 깨어 있어서 사탄의 교활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8-9]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를 속이는 두번째 그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위의 친인척, 친구들, 동료들, 비즈니스 관련자들 등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에게 여러번 임금을 속임 당하였다고 아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창 31:7). 라반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인척일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쉽게 속이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절름발이 아들인 므비보셋을 받들던 종들의 주장인 시바는 주인을 다윗 왕에게 거짓으로 험담하여 왕과 주인을 속였지만, 왕은 자신의 피난 길에 시바가 물질로 자신을 공과하였으므로 므비보셋의 재산을 나누라고 명하여 시바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섬기는 하수인, 회사의 직원이나 종업원이 우리를 속이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위의 불신자들을 사랑과 자비로 대하되 그들의 속임수와 죄성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영성을 부패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현명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33-34] 속지 말라. 악한 사귀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우리를 속여서 부패시키는 세번째 요소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죄성입니다. 어떻게 죄가 우리를 속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11]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신이 죄가 없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결과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 즉 생명이 없는 영혼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속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법을 심각하게 어긴적이 없으니 죄인이 아니다. 나는 교회에 잘 나가고 헌금과 십일조를 충실히 바치고 있으며, 건전한 시민으로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가도 별 문제 없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안심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께는 죄인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바로 그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 1 서 1:8-10]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아간은 욕심에 사로 잡혀서 계명을 어기고 전투에서 탈취한 물건을 탐내어 이를 자신의 장막 안에 숨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아간의 물욕이 온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호수아 7:11]. 이와 유사하게 초대 교회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를 물질로 섬김에 있어서 거짓말로 사도들을 속이려 하였지만, 그 죄가 드러나서 죽임을 당하게 된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행 5:1-5]. 이와 같이 우리 안의 죄성이 자신과 교회를 속이려 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영적 파멸과 교회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모든 신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속이는 네번째 요소는 성도와 교회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 거짓된 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모세의 인도 아래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 생활 40 년 동안 불과 몇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두려워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 불신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 밖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참된 신앙으로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를 흠모하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 모두 멸망 당하고 앗시리아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대언자 에스겔은 유다를 질책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부패함은 사마리아와 소돔과 같이 가증하다고 비판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에스겔 16:46-47] 네 언니는 자기 딸들과 함께 네 왼쪽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네 동생은 자기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하는 소돔이니라. 47 그러나 네가 그들의 길들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네 모든 길에서 그들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안한 생활이 파괴될 것을 두려워 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교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한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속였습니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부패한 신앙, 나락까지 떨어진 저질 신앙을 혐오하시고, 이방 군대를 이용하여 그들을 끌어 내리시고 엄벌에 처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교만과 위선, 거짓을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이를 처벌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9-10]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다고 하여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어 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시대를 지나고 불변합니다. 왜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좋은 전통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관습을 버리지 않으면, 비록 구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 받지 못하고 왕국 밖에서 슬피 우는 불쌍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패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준엄한 주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함으로써 불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참 빛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세가 오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에 속지 말라고 다음과 같이 경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8]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정통파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을 박해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과거에도 어떤 랍비를 그리스도라고 치켜 세운 적이 있는데, 흐지부지 되었고 이제 다른 랍비를 고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였지만 죽고 없습니다. 최근에는 신천지 이단 집단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인정하나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모하멧이 알라의 말씀을 받은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모하멧은 부자 과부와 결혼하여 그 부를 이용하여 기독교 성경을 변개하여 새로운 종교를 수립한 가짜 구세주일 따름입니다. 그도 역시 죽어 없으며, 그가 남긴 코란에 세계의 수억 인구가 속아서 헛된 것을 믿고, 심지어는 극단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그것이 천국가서 상 받는 일이라고 속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2. 우리가 속임 당하기 쉬운 상태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진실이 아닌 허위,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우상 숭배에 쉽게 속아서 오늘날 온갖 잘못된 종교와 교리, 잘못된 정치 체제 등이 득세하여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적, 영적 상태에 있을 때에 이런 거짓에 쉽게 속아 넘어갈까요, 성경은 그러한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의 하와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 말씀의 준엄성을 두려워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창 3: 4-5]”라고 하와를 안심시켰고, 하와는 이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진리 대신에 거짓된 미래를 믿도록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지는 시작점이 바로 성경 말씀의 절대성과 무오성을 의심하고 그저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그 원칙을 변경하신다고 믿으며,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원칙은 옛 시대의 원칙들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주장하며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신자들의 신앙에 금이 가고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진실된 크리스찬이 받을 상에 대한 좌표가 흔들릴 때에 우리는 속임 당하기 쉽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유명한 티브이 전도사들은 물질적 축복을 받으려면 자신에게 돈을 보내라고 설득합니다. 계시록은 또한 적 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악한 무리들은 가상현실 기법들과 인공 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러한 수법으로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을 세계인의 구세주로 믿도록 속일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3. 하나님의 권면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시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하여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원칙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불변입니다.

[히브리서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오직 불변하신 영원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들이 우리의 인간성을 만족시키는 상들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충실한 종들을 상 주시고,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영혼들을 벌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기 바랍니다. 인간을 지난 6 천년 동안 속여서 온 세계를 혼란과 전쟁과 가난과 거짓 가운데 몰아 넣은 원수인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불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고통받는 모습을 볼 것이며,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는 혼들, 즉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된 모습을 보면서 불 호수에서 영원토록 회환과 고통속에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1-3]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닷속의 구렁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2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하여, 3 바닷속의 구렁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요한계시록 20:10]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서 속임 당하기 쉬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경고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신명기 11:16-19]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17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시므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굶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18 ¶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의 표로 삼으며, 19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네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에서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여 마음과 혼 가운데 두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그 말씀을 존중하여 우리 인생의 지표로 삼으면, 우리는 결코 속지 않고 약속하신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이며, 이생에서도 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